

## 광학탑재체 환경시험용 우주환경모사장치 개발

이상훈, 조혁진, 서희준, 문귀원, 최석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인공위성은 지상에서 설계 제작된 후에 발사체에 탑재되어 궤도에 진입되어 위성에 부여된 고유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성체가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공간은 고진공 환경과 태양 복사 열에 의한 고온 환경 및 극저온이 반복되는 가혹한 환경으로 특징지어진다. 때때로 위성체는 이러한 가혹한 우주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주요부품의 기능장애가 초래되기도 하며 이는 결국 임무의 실패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우주환경은 지상 환경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제대로 작동하는 것으로 관찰되는 위성체가 우주환경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기능장애를 보이기도 하고 이로서 위성의 성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10^{-6}$  torr 이하의 고진공과  $-180^{\circ}\text{C}$ 의 극저온 환경으로 일컬어지는 우주환경을 지상에서 모사하여 위성체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열진공 시험장비를 이용한 열진공시험을 수행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인공위성의 탑재체인 광학카메라의 국산화 개발을 위하여 우주공간의 고진공과 극저온 상태를 모사할 수 있는  $\phi 4\text{m} \times \text{L}10\text{m}$  규모의 광학탑재체 전용 열진공챔버를 국산화 제작하고 있으며, 그 과정 및 챔버 진공용기에 대한 진공시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